

벤처창업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벤처투자 활성화제도와 혁신형기업의 생존 및 고용창출 분석

정대영*

기술보증기금(벤처혁신사업부), 부장

강신정**

기술보증기금(디지털전략실), 부부장

국문 요약

정부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역동적인 벤처창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창의적인 벤처기업과 혁신적 창업자 육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 힘입어 벤처투자금액 및 기술창업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벤처창업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COVID-19 이후 성장률이 급격히 낮아지고 청년층의 실업률이 급등하는 등 우리 경제는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의 성장 활력을 증진시켜 부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벤처창업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고 특히 4차 산업혁명 환경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형기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인 성장잠재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술 기반 중심의 벤처창업의 활성화가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벤처창업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육성시책을 고찰하고 기술 기반 벤처창업기업의 생존과 성장, 및 일자리에 미치는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벤처투자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민간 금융기관 입장에서 벤처창업기업이 여전히 高위험-低수익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벤처투자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핵심어: 벤처창업기업, 벤처투자, 기술 기반, 혁신형기업, 생존율, 고용창출

I. 서론

정부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지난 4년간 과학기술의 발전과 미래 성장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역동적인 벤처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창의적인 벤처창업기업과 혁신적 창업자 육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개편하고 창업·벤처기업의 일자리창출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벤처투자금 및 기술창업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벤처창업 생태계의 개선이 가속화되고 있다. COVID-19 이후 성장률이 급격히 낮아지고 청년층의 실업률이 급등하는 등 우리 경제는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경제의 성장 활력을 증진시켜 부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벤처창업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벤처창업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정부 정책의 현황과 성과를 살펴보고 벤처창업 생태계의 역동성이 지속되기 위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II. 연구 배경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인 성장잠재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술 기반 중심의 벤처창업 활성화가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특히 4차 산업혁명 환경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형 기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술기반 창업 가운데서도

* 1107@kibo.or.kr

** kang@kibo.or.kr

특히 선도적인 기술혁신형 기업, 기술집약형 기업,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scale-up)하여 새로운 산업 환경에서 예상되는 고용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벤처창업기업 중 고용 및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성장기업을 중점 육성하는 것이 벤처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핵심 정책인 점을 고려하여 벤처창업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육성 시책을 고찰하고 기술 기반 벤처창업기업의 생존과 성장 및 일자리 특성을 분석하였다.

III. 연구방법 및 내용

3.1. 벤처창업기업 지원 정책 및 성과 분석

플랫폼 기반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면서 산업구조가 소수 대기업 중심에서 혁신기술을 보유한 다수 벤처창업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산업구조가 대기업·공급자 중심에서 다양한 핵심기술들이 융합되는 기술 기반 벤처 창업 기업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규 창업에 의한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효과는 창업기업의 기술 사업성, 생존율 등에 따라 크게 영향받기 때문에,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고 우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는 것이 벤처창업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벤처창업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한 벤처창업 활성화에 관련된 주요 제도를 파악하고 기술사업 평가를 기반으로 벤처창업기업에 벤처혁신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지원 기업의 생존율과 혁신형기업의 고용 특성을 분석하여 기술 기반 벤처창업기업 육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3.2. 벤처창업기업의 혁신 · 성장 지원제도

정부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을 국정과제로 삼고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이후 범정부 대책을 6차례 수립하였고, 모험자본 관련 3대 주요 법안 마련을 추진하는 등 벤처창업기업이 스타트업 단계를 벗어나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벤처투자 자금 조달 및 scale-up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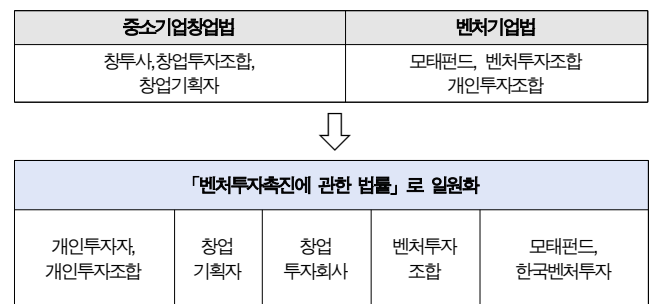
<표 1> 정부대책 및 모험자본 관련 3대 주요 법안

구분	내용
정부 대책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17.11.)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18.1.)
	「제2벤처붐 확산전략」(19.3.)
	「혁신금융 추진방향」(19.3.)
	「K-유니콘 프로젝트」(20.4.)
	「기술기반 벤처 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 방안」(21.1.)
모험자본 관련 3대 법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20.8.)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도입」 허용(20.12. 공정거래법 개정)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추진(20.12. 벤처기업법 국회 제출)

특히 ‘벤처투자촉진법’은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이후 추진된 제1호 제정 법안으로 벤처투자를 벤처생태계를 구성하는 별도의 영역으로 인정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투자 방식을 정비하기 위해 제정이 추진되어 ‘20년 8월 시행되었다.

‘벤처투자촉진법’은 벤처기업법(‘97년 제정)과 중소기업창업법(‘86년 제정)에 나누어 규정되어 있는 한국벤처투자조합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제도를 통합하여 하나의 법으로 일원화하고, 벤처투자 제도를 전체적으로 체계화 한 것에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2> 벤처펀드 일원화 체계>



아울러 정부는 벤처·스타트업이 스케일업 과정에서 느끼는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시장이 발달한 실리콘밸리의 벤처투자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투자-유자-보증간 융복합 지원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3.2.1.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도입

SAFE투자제도는 2013년 미국의 대표적인 액셀러레이터인 Y-Combinator가 창안한 모델로 기존 투자방법(보통주,

상환전환우선주, CB, BW)은 투자와 동시에 기업가치를 결정 하는데 반해 투자자가 먼저 투자를 하고, 다른 투자자의 후속투자가 이루어지면, 후속 투자에서 결정된 기업가치로 先 투자자의 지분율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벤처투자할 당시 기업가치를 결정하지 않음에 따라 ①가치산정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②신속한 투자 계약이 가능하며, ③계약자체가 간편하게 이루어지는 등 신속성, 공정성 측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어 정확한 기업가치 산출이 어려운 창업 초기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미국의 액셀러레이터가 SAFE를 널리 활용되고 있는 상태로, Y-Combinator는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 중 30%를 SAFE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 SAFE투자 제도의 장점

구분	내용
스타트업	성과에 따른 가치 결정으로 공정성 제고 협상시간 감소로 사업에 집중 가능
투자자	성과에 따른 가치 결정으로 도덕적 해이 방지 Valuation Cap이나 Discount로 초기기업 투자에 대한 리스크 보상 가능

SAFE투자제도는 '20.8월 「벤처투자촉진법」에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현재 창업기획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용 중이고, '21.9월 「기술보증기금법」에 SAFE투자 근거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SAFE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3.2.2.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용자(Venture Debt) 제도 도입

'18.3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위원회가 개최한 '스타트업 포럼 2018'에서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가 운영하고 있는 벤처대출(Venture Debt) 도입을 통해 유니콘기업을 양성할 것을 제안하여 국내 도입 논의가 시작된 이후 '21.1월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 방안」에서 국내 도입이 발표되었다.

Venture Debt제도는 벤처투자를 유치한 비상장 기업에게 용자하는 경우, 용자기관이 신주인수권 획득을 가능하도록 명시하여 특정 용자기업의 신주를 권리행사기간 동안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발행 요구 및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게 하여 벤처창업기업에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 하는 제도이다.

<표 4> Venture Debt

구분	내용
개념	용자기관이 "소액의 신주인수권 획득 & 후속 투자자금으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벤처투자 유치기업"에게 저리로 용자해 주는 제도(美)
현황	'17년말 기준 126.3억\$ 추정(美 VC투자 규모의 15% 수준), '10~'15년 중 Venture Debt 이용 스타트업 비중은 약 20%로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우버 등 포함
작동 원리	기업-용자기관-투자기관 간 신뢰 및 이해 관계에 기반 - 기업 : ①지분희석 방지, ②후속투자 유치 전까지의 운영자금 확보(설비투자-시장진출), ③후속투자 유치 확률 향상 등 - 용자기관 : 리스크분산을 위해 ①VC 후속투자를 상환재원으로 활용, ②금리가 낮은 대신 신주인수권 취득(통상 용자액의 1~2%)·투자기관 : ①후속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시간 확보, ②투자기업 가치 상승

Venture Debt제도는 1960년대 미국실리콘밸리 지역에서 Venture Leasing형태로 운용된 것이 시작이나, 1970년대 벤처투자의 불황으로 그리 주목 받지 못했었는데 1990년대 초, 미국의 벤처붐으로 인해 새로운 대안으로 Venture Debt시장도 급속히 성장하였으며 기존 Venture Lease에 기반한 리스회사(예: Comdisco, TransAmerica 등)에서 실리콘밸리 은행(SVB), 코메리카은행 (Comerica) 등 기술 기반의 전문은행과 WTI, TriplePoint Capital, Hercules Technology 등 펀드회사들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활성화되었다.

국내 대표적인 벤처혁신 정책금융기관인 기보는 '14년도부터 Venture Debt와 유사한 효과를 갖는 투자옵션부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21년도부터 투자옵션부보증을 2,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표 5> 기보의 투자옵션보증 제도

구분	내용
개념	보증 지원시 상호간 약정을 거쳐 향후 신주 발행시 기술보증기금이 이를 인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보증(옵션행사 가능액은 보증액의 10% 이내로 한정)
우대	일반 보증과 달리 벤처투자 유치를 조건으로 하는 보증에 투자옵션을 우선 적용하고, 보증한도 상향, 지원금액 산정특례 등 우대 지원
지원규모	('18) 528억원 → ('19) 578억원 → ('20) 392억원

<표 6> 투자조건부 용자(美), 신주인수권부사채(韓) 및 전환사채(韓)의 비교

구분	美 투자조건부 용자 (Venture Debt)	韓 신주인수권부사채 (Bond with Warrant)	韓 전환사채 (Convertible Bond)
대상	벤처투자 유치기업 (Series A1이상)	모든 일반기업	
방식	일반 용자방식 (용자기관)	사채 + 신주인수권 (채권시장)	신주로 전환이 가능한 사채 (채권시장)

1) Series A단계 : 통상 시제품 개발 또는 시장진출 직전의 창업 2~5년차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투자규모 5~40억원 가량의 투자단계

신주 인수권	별도 신주인수권 계약 체결 (융자계약과 별개)	유사 개념으로 신주인수권 증권 존재 (분리형BW)	신주인수권 개념 없음 (융자금액 자체가 신주로 전환)
규모	통상 융자금액의 1~2% 수준 (협상으로 지분희석 최소화)	융자금액의 100% 수준	
용자& 상환	벤처투자자와 동시 또는 직후 용자 후속 벤처투자 유치시 상환	-	-

3.2.3. 조건부 지분전환계약(Convertible Note) 제도의 도입

중소벤처기업부는 초기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벤처투자 촉진·투자방식 다양화를 위해 후속투자가 실행되지 않으면 상법상 사채, 후속투자가 실행되면 상법상 전환사채로 계약을 이행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조건부 지분전환계약제도’ 도입을 위한 「벤처투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표 7> 美 Convertible Note

구분	내용
개념	주식 전환이 가능한 사채계약 형태로 투자되되 미리 전환조건을 설정하지 않고 향후 후속투자 유치시 전환조건을 정하는 채권형 투자방식
특징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처럼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창업기업에게 많이 적용

조건부 지분전환계약은 당초 설정된 계약기간 내에 후속투자가 실행되지 않으면, ‘원금+이자’를 지급하고, 당초 설정된 계약기간 내에 후속투자가 실행되면 전환사채 발행이 의무화되는 제도로, 조건부 지분인수계약(SAFE투자제도, 高위험·高수익)에 비해 中위험·中수익을 추구하는 투자방식에 적합한 제도이다.

<표 8> SAFE와 Convertible Note의 비교

구분	내용
SAFE	투자자가 先 투자를 하고, 추후 후속 투자가 이루어지면 이때 결정된 기업가치로 先 투자자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방식
CN	후속투자가 없어도 원금·이자 보장이 되나, 후속투자 발생시 상법상 전환사채로 계약을 이행

<표 9> 조건부 지분전환계약과 조건부 지분인수계약의
비교

구분	美 조건부 지분전환계약 (Convertible Note)	韓 조건부 지분인수계약 (SAFE)	韓 전환사채 (Convertible Bond)
대상	벤처·스타트업 (주로 초기 창업기업에 적용)		모든 일반기업
성격	계약 & 채권형 투자방식 (사채+전환사채 인수권)	계약 & 지분형 투자방식 (만기·이자 없음, 지분 인수권)	유기증권 & 채권형 투자방식 (신주로 전환이 가능한 사채)
전환 시기	후속투자 유치시 (전환가격, 지분가격 등은 후속투자시 기업가치에 따라 결정)		-

3.2.4. K-유니콘 육성

유니콘기업은 대표적인 고성장기업으로 고성장기업(High-Growth Firms)은 일정기간 동안에 고용 또는 매출액, 수익 등의 증가가 다른 기업과 비교하여 현저히 빠르거나 큰 기업(Birch & Medoff, 1994; 김성태 외, 2015)으로 특히 Birch & Medoff(1994)는 작지만 빠른 성장을 하는 고성장 기업을 가젤(Gazelles)에 비유하였다. Birch & Medoff(1994)에 따르면 상위 4%의 고성장 기업이 전체 일자리의 60%를 창출하고 신규로 창출되는 일자리의 50%는 고성장 기업을 통해서 발생한다고 하였으며, 이후 많은 연구에서도 고성장기업이 민간부문 일자리의 상당 부분을 창출하고 있다고 하면서 고성장기업의 육성을 강조하였다.

現 정부에서도 벤처창업기업이 start-up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19년부터 한국의 유니콘(K-Unicorn)으로 성장할 수 있는 후보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K-유니콘 프로젝트'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표 10> 단계별 K-유니콘기업 육성 체계

1단계	2단계
유망 벤처창업기업을 발굴하여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으로의 성장을 지원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등을 통해 유니콘기업으로의 신속 성장을 집중 지원
이기유니콘 200개사 선정·지원	예비유니콘 100개사 육성
민간vc로부터 20억원 이상 벤처투자금 유치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심의를 거쳐 선정	민간vc로부터 50억원 이상 벤처투자금 유치기업 또는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심의를 거쳐 선정

기보는 예비유니콘 육성을 위해 한 기업당 최대 200억원 까지 특별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고, '21.6월말 현재 76개 기업을 선정하여 누적금액 기준 4,410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11>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대상기업 세부기준

구분	세부기준
시장검증	국내외 벤처투자기관에서 50억원 이상(누적) 투자유치기업
성장성	최근 3개년 매출성장률이 연평균 20% 이상 및 상시종업원이 최근 월말 10명 이상인 기업. 단,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전년도 매출액이 직전년도 대비 100억원 이상 증가 및 최근 월말 상시종업원 10명 이상인 기업
혁신성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기업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에 선정된 기업은 대표적인 혁신형 기업으로 시장에서 인정되어 '19년부터 '20년 기간에 선정된 기업 중 25개사가 9,680억원의 후속투자를 유치하였고, 4개사가 코스닥 상장 및 1개사가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에 등재 되었으며 선정 이후 2,556명의 고용이 증가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시현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벤처창업기업 육성 노력에 힘입어 최근 5년간 벤처투자 규모가 2배 이상 확대되어 '19년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은 0.22%로 세계 4위권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며, '스타트업 지놈(Genome)' 글로벌 창업순위에서 서울이 270개 도시 중 20위를 기록('20.6) 하는 등 국내·해외의 창업인식이 크게 개선되었다. 또한 유니콘기업 수는 '17년 3개사에서 '18년 6개사, '19년 11개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코로나19 속에서도 새로운 유니콘기업(쏘카, 쉐리 등)의 탄생으로 '20년 13개사까지 증가하는 성과를 시현하였다.

벤처창업기업, 유니콘기업이 상장시장의 새로운 주역으로 자리매김하여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으로,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인 예비유니콘기업 수도 '17년 115개사에서 '18년 158개사, '19년 235개사, '20년 9월 297개사로 지속적으로 증가(한국벤처캐피탈협회)하였으며, '15~'19년 벤처투자 유치기업의 기업가치는 약 124.8조원으로, 삼성전자(시가총액 333.1조)에 이어 코스피 2위 및 코스닥 시가총액의 51.7% 수준(코스닥 시가총액 241.4조, '19.12말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3. 벤처창업기업의 생존·고용창출 분석

기술 기반 벤처창업이 활성화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벤처투자제도의 마련과 함께 벤처창업기업의 무형자산 및 미래가치 등 기술사업평가에 기반한 자금지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앞 절에서는 정부의 다양한 벤처창업기업 육성시책을 살펴 보았으며, 본 절에서는 이러한 육성 시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벤처창업기업이 창업후에 생존하고 혁신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므로 벤처창업기업 중 생존율이 높은 기업과 혁신 역량이 우수한 기업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3.3.1. 신설기업의 생존율 증가에 따른 효과성 분석

가. 분석대상 : '12년~'17년 기간 매년도별 기보의 신규보증 지원기업 중 신설기업으로 '12년 신설기업 2,974개사, '13년 2,946개사, '14년 3,875개사, '15년 5,157개사, '16년 2,777개사, '17년 3,301개사

나. 분석방법 : 기보로부터 '13년 신규보증 지원받은 신설기업의 생존율과 국내 중소기업의 생존율 차를 산출하고, 연차별 기업의 고용인원, 재무제표 기반 부가가치 금액 등을 활용하여 효과성을 분석

라. 분석결과 ① '12년 신설기업의 연차별 생존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1년 생존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신설기업(제조업 기준)의 5년 생존율(38.4%)과 비교할 경우, 36.3%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②생존율 차이로 발생하는 고용유지는 생존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업당 평균고용자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커지고, 5년 간 총 23,427명의 고용을 유지시킨 것으로 추정됨.

③생존율 차이로 발생하는 부가가치 창출은 생존기간이 길수록 증가하며, 5년간 총 2,021,683백만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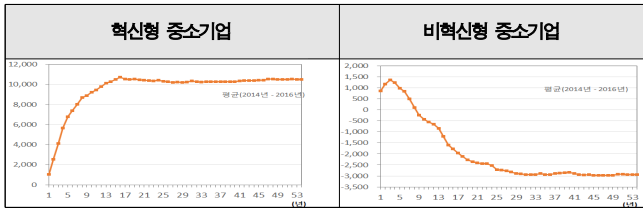
④ 생존율 증가에 따른 고용유지 및 부가가치는 생존 기간이 길수록 선형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생존율 증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음.

3.3.2. 혁신형 기업의 고용창출 분석

가. 분석대상 :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고용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초데이터는 기보 보증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12년~'16년 기간 동안의 기업정보와 한국고용정보원으로부터 수집한 고용보험가입자 수를 활용하였으며, 혁신형기업은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과 기술혁신형기업(Inno-Biz)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임.

나. 분석결과 : ① 혁신형 기업은 창업 후 평균 8년까지 고용이 선형적으로 급격한 증가 후, 일정 추세를 유지하는 반면, 비혁신형 기업은 평균 3년까지 선형적으로 증가 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심성학 외, 2018).

<표 12> 혁신형 유무에 따른 누적 고용 증가



②혁신형 중소기업의 고용은 U 자형 패턴을 보여 고용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패턴을 보인 반면, 비혁신형 기업은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혁신형기업과 비혁신형기업의 고용 변화

IV. 결론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벤처투자 촉진법 제정 및 K-유니콘 프로그램 도입 등 다양한 벤처창업기업 육성시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연대보증인 면제 등 기업가정신 제고 시책 등에 힘입어 벤처창업기업이 증가하고 있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벤처창업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주요한 성과이다 그러나 벤처투자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민간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벤처창업기업이 여전히 고위험-저수익 대상으로 여기고 있으며 재무제표가 좋지 않은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투·융자를 꺼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창업 초기 이후에도 지속 공급되는 인내자본(patient capital)이 중요 하나, 기존 제도내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등 민간금융기관으로만 모험자본으로서의 벤처투자시장이 작동 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벤처창업기업의 원활한 벤처투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민간 금융기관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벤처투자시장에 뛰어 들 수 있도록 혁신형기업의 선별 및 육성에 역량과 노하우를 갖춘 기보의 보증 기능을 활용하여 벤처캐피탈 등에 대한 자금을 공급하거나 한국형 SBIC제도를 도입하는 등 벤처투자시장에서 정책 금융기관의 보완 역할을 강화하고 벤처창업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보로부터 기술사업성을 평가받은 기업에 대한 생존 및 고용창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술기반 벤처창업기업의 생존율과 부가가치가 일반 기업보다 더 높고, 벤처·이노비즈기업 등 혁신형 기업은 창업 후 지속적인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추진 등으로 신규 고용이 창출되는 업력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지속 가능한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술 기반 혁신형 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벤처창업기업 중 혁신역량이 우수한 혁신형기업에 대하여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며 지속성장(scale-up)할 수 있도록 K-유니콘 프로젝트와 같이 국민경제적 파급 효과가 높은 될성부른 기업에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심성학·강신정·김지민(2018).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기술금융연구*, 8(2), 191-213.
 Birch, D. L., & Medoff, J.(1994). Gazelles. In L.C. Solmon & A.R. Levenson, (Eds.), *Labor Markets, Employment Policy and Job Creation* (pp. 159-167). Boulder, CO and London: Westview Press.
 김성태·홍재범(2015). 고성장기업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기술혁신연구*, 23(3), 373-396.